

# iM뱅크, 전국영업 시동... 강원 1호점 연다

내일 '거점 점포' 원주지점 개점  
뉴 하이브리드 뱅크 가능성 전초전  
연내 2개 점포 추가 개설 추진  
구로·동탄 등 산업밀집지역 고려

지난 5월 시중은행으로 재출범한 iM뱅크(옛 DGB대구은행)가 본격적인 전국 단위 영업에 나선다. iM뱅크는 오는 24일 개점하는 1호 '거점 점포' 강원도 원주지점을 시작으로 수도권·충청도 등 전국에 점포를 설치하고, 지역 내 전문성이 높은 현지 인력을 확보해 지역 중소기업 공략에 나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iM뱅크는 오는 24일 시중은행 재출범 이후 처음으로 '거점 점포'인 원주지점의 영업을 개시한다. iM뱅크는 올해 안에 원주지점에 이어 2개의 거점 점포를 추가로 개설한다.

iM뱅크의 '거점 점포'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금융 특화 점포다.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기존 시중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상품을 공급한다.



대구 iM뱅크 제2본점 전경. iM뱅크 제2본점에는 지주사인 DGB금융지주도 소재해 있다. /iM뱅크

이달 초 iM뱅크는 원주지점의 지역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강원지역 금융기관에 2년 이상 근속한 인력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 또한 지점 책임자로 외부 출신인 정병훈 전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장을 영입하는 등 관행을 깬 '파격 인사'도 단행했다.

아울러 중·저신용 대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기업 대출 평가에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진 평판 등 대안 정보의 복합 평가 과정도 도입한다. 원주지점은 1인 지점장 제도인 '기업 금융전문가(PRM)'의 강원도 내 거점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iM뱅크가 지난 2019년 도입한 'PRM'은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 지점장급 퇴직자를 영입해 단독 영업이 가능한 1인 지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임명된 각각의 PRM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품을 공급한다.

지난해 iM뱅크 소속 PRM이 판매한 대출액 규모는 3조1300억원으로 iM뱅크의 전체 기업대출액인 33조3150억원의 9.4%를 공급했다. 또한 PRM 1인당 기업 대출 취급 규모는 일반 임직원의 5배에 육박한다.

iM뱅크가 올해 들어 수도권·충청·

강원 지역 영업을 위해 신규 채용한 PRM은 50여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iM뱅크 소속 PRM 총원인 66명의 75%에 달한다.

이는 고정비용 지출이 큰 점포 설치를 최소화하는 대신, 현지 사정에 밝은 PRM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높은 금리 경쟁력을 갖춘 특화 상품을 공급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원주지점의 성패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 전략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앞서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영업 전략으로 인터넷은행의 금리 경쟁력과 지방은행의 기업금융 노하우를 함께 갖춘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제시한 바 있다.

iM뱅크는 원주지점에 이어 거점 점포를 설치할 장소로 구로·동탄 등 수도권 산업 밀집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

iM뱅크 관계자는 "지역별 거점 점포 개점 계획은 앞서 발표했던 계획대로 충청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단위로 추진 중"이라며 "원주지점 바로 다음으로 문을 열 거점 점포로는 구로·동탄 등 수도권 지역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카드 News

### DB손해보험

## 초등생 650명 대상 안전리더 캠프 성료

DB손해보험이 안전리더 캠프를 개최했다.

### ◆ '프로미 119 안전리더 캠프'

DB손해보험은 지난 19일 태백시(365세이프타운), 강원소방본부와 공동 운영하고 소방청이 지원하는 '프로미 119 안전리더 캠프'를 성황리에 개막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태백 365세이프타운 및 강원 소방학교에서 진행되는 안전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650여명을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번 안전 캠프는 산물체험, 테러 체험, 화재진압체험 등 다양한 안전 체험 활동으로 운영된다. 집라인 체험과 챌린지 월드 등의 아웃도어 액티비티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 NH농협손해보험

## 다문화 가족 여성들과 여름 보양식 만들기

NH농협손해보험이 여름 보양식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 ◆ 다문화 가족과 한식 만들기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들과 함께 여름 보양식 만들기 체험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장경민 NH농협손해보험 마케팅부문 부사장과 헤아림봉사단, 다문화 가족 이주여성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체험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강한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국대학교 인액터스 팀('토버스(TOWBUS)' 프로젝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해상

### 현대해상

## 인액터스 코리아 국내대회 지속 후원

현대해상이 '인액터스 코리아 국내대회'를 후원한다.

### ◆ '인액터스 코리아' 지원

현대해상은 자사가 후원하는 '인액터스 코리아(Enactus Korea)' 국내대회가 올해 20주년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회에는 전국 26개 대학의 학생 및 교수,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 사회적기업 대표 등 약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인액터스(Enactus)는 전세계 32개국의 대학생들이 학교내 팀을 이뤄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이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다.

/김주형 기자 gh471@

# 카드사, 올 상반기 리볼빙 7.3조... 잔액 2500억 뚫

당국, '최소결제' 문구금지 등 규제  
삼성카드, 1192억 줄어 전체 46%

올 상반기 카드사의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리볼빙 서비스의 명칭을 손질한 금융당국의 해법이 통했다는 평가다. 반면 카드론 잔액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합산 리볼빙 누적 잔액은 7조 2563억원이다. 연초(7조5153억원) 대비 2590억원 줄었다. 리볼빙서비스란 카드대금의 최소 약정비율을 상환하면

납부 기간을 1개월 미루는 기능이다.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활용되지만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사 중 리볼빙 잔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삼성카드다. 올 상반기 1192억원 줄이면서 6월말 1조1726억원을 기록했다. 카드업계 전체가 줄인 잔액의 46.0%를 차지한다. 리볼빙은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만큼 상환이 까다롭다. 건전성 확보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카드 다음으로 리볼빙 잔액이 크게 줄어든 곳은 롯데카드다. 같은 기간 690억원 감소한 1조183억원이다. 매달 115억원씩 줄인 셈이다. 이어 신한

카드와 하나카드가 340억원씩 줄었으며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는 각각 173억원, 86억원씩 감소했다.

이처럼 리볼빙 잔액이 감소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조치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서비스에 '최소결제'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연간 리볼빙 잔액이 2000억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금감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앞서 카드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급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증가한 영향으로 홍보 문구와 큰 관련이 없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소비자가 신용카드 상품에

가입할 때 리볼빙 서비스 가입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고지의무를 지킨 만큼 일각에선 과도한 조치란 목소리도 등장했다.

내친김에 업계에서는 리볼빙 누적 잔액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신규가입자의 리볼빙 서비스 가입 시기를 늦추거나 최소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면서다. 연체율 해소가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리볼빙 관련 마케팅을 축소하는 행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달 전업카드사 8곳의 리볼빙 금리 평균은 연 17.14%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회원에게 적용한 금리는 연 18.86%로 전체 평균 대비 1.72%포인트(p) 높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전면적인 내부통제 재점검 필요”

부산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방성빈 은행장 '주인의식' 강조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하반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건전성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동시에 금융 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한 인식전환과 전면적인 내부통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방 행장은 지난 19일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금융의 본질은 신뢰인 만큼 성숙하고 병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바른 은행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

가자”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하는 의미에서 '흔들림 없는 회복력 : 불확실성을 넘어서'를 주제로 지난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하반기 경영전략 및 영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반기 경영전략 슬로건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담하게, 후반전에 전력 질주하여 성장회복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아 '대반전(大反轉)'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경영전략 방



BNK부산은행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향인 '수익 중심의 지속가능한 내실 성장'을 위해 건전성 관리에 최우선으로 집중하면서, 공공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한 지역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해 지역에서의 든든한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아웃바운드 영업 조직 강화를 통해 영업권역을 넓히는 등 역외지

역 틈새시장 발굴을 통한 실용적 성장 전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장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에는 실시간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수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방성빈 은행장이 직접 답변하는 등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